

보도자료

서울문화재단 2017년 서울시민예술대학 공모 선정 프로그램

후원:  서울문화재단 | 주최·주관:  서울시민예술대학 |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민예술대학〉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예술대학은 시민, 예술,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을 꿈꾸며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채로운 나를 발견하고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몰로야!

연극과 영화를 하나의 무대로
키노 드라마(Kino Drama)



장소: 효창종합사회복지관 4층 문화체육실

시간: 2017년 11월 10일 (금 17:00)



극단 그림연극 BILDTHEATER

[Http://www.bildtheater.com](http://www.bildtheater.com)

서울 성북구 삼양로8가길 6 (우)136-801 Tel: (02)945-7518

연극과 영화를 하나의 무대로 풀어내는 키노드라마 “인생은 옳로야!” 공연정보

개요

사업: 서울문화재단 2017년 서울시민예술대학 공모 선정 프로그램

프로그램: 꿈꾸는 어른을 위한 키노 드라마(KinoDrama)

공연명: 인생은 옳로야!

출연: 양월순, 라순식, 박달순, 김용순, 정문순, 최광자, 박덕자, 조영숙,
김상만, 박인택, 이정수, 이근호

연출: 이현찬 / 영상: 조수진 / 대본 및 연기지도: 김영아

후원: 서울문화재단

주최,주관: 극단 그림연극,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일시: 2017년 11월 10일 17시

장소: 효창종합사회복지관 4층 문화체육실

공연시간: 40분

입장료: 무료

기획의도:

극단 그림연극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인구를 대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실버 세대의 인구 증가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교육에서 다른 세대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전문시설이나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극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어르신이 직접 구성한 이야기를 무대화함으로써 세대 통합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나

농의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내용: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시민예술대학은 시민, 예술, 삶이 행복해지는 서울을 꿈꾸며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채로운 나를 발견하고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극단 그림연극의 프로그램 '꿈꾸는 어른을 위한 키노 드라마(Kino Drama)'는 지난 4월 22일부터 주 1회 2시간씩 총 54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간단한 신체트레이닝을 시작으로 몸을 풀고, 연극적인 감각을 일깨웠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그동안 출연자인 어르신들이 혼신의 힘으로 만든 키노 드라마 “인생은 옳로야!”를 발표한다.

작품 "인생은 옳로야!"는 ‘어른으로 살아가기’와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나의 이야기'란 주제로 출연자 모두가 각각 발표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통합하여 대본으로 구성하였다.

줄거리:

어느덧 할머니, 할아버지란 호칭을 듣게 된 나는 과거 6.25전쟁의 피난생활과 오늘의 따듯한 현실을 생각한다. 참 많은 변화 속에서도 잘 버텨온 내가 대견하기도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별, 이혼, 졸혼 등으로 홀로 살고 있다. 복지관에 다니며 친구도 생기고 요가, 수영도 배우며 재미있게, 때론 봉사하며 보람찬 하루를 보낸다. 이런 나는 용기 있게 연극으로 나의 속마음을 열어 놓는다. 인생이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것. 나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꿈꾸는 어른을 위한 키노 드라마(Kino Drama)'는

4월 22일부터 주 1회 2시간씩 총 54시간동안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간단한 신체트레이닝을 시작으로 몸을 풀고, 나 몰래 어디엔가 잠들어있을 연극적인 감각을 일깨웠다, 드디어 우리는 자랑스러운 나를 지켜보는 관객 앞에 분장을 하고 서있다. 지금의 이 순간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그때처럼 낯설기도 하고 두렵고 흥미진진하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기로 했다.

작품 "인생은 옳로야!"는

'어른으로 살아가기'와 '책 한권으로도 모자랄 나의 이야기'란 주제로 출연자 모두가 각각 발표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용을 통합하여 대본으로 구성하였다.

출연자 및 제작진



양월순 라순식 박달순 김용순



정문순 최광자 박덕자 조영숙



김상만 박인택 이정수 이근호



연출: 이현찬 공연예술가
Hochschule für Schauspielkunst "Ernst Busch", Berlin
(국립연극예술대학 "에른스트 부쉬")



영상: 조수진 박사
Friedrich-Alexander-Universität Erlangen-Nürnberg
(에어랑엔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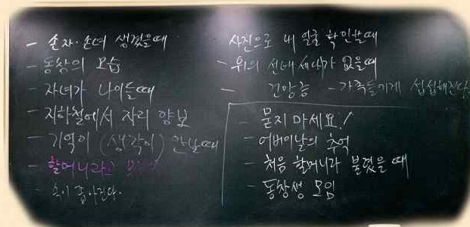
대본 구성, 연기지도: 김영아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진행: 김정환, 백복선 / 분장: 김은옥



키노 드라마(Kino Drama)란?

연극의 장면 중 과거나 미래의 사건을 미리 촬영하여 영상을 연극의 일부본으로 공연 때 상영하는 극이다. 영화의 촬영과 편집으로 연극으로 표현하기 힘든 장면을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극단 그림연극은

연극연기에 인형, 물체, 애니메이션 등의 다중매체를 표현방법으로 좀 더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연극을 하고자 1999년 창단하였다. 공연예술창작을 기반으로 하며,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술교육으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인형연극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극단은 연극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2회에 걸쳐 시니어씨어터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사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계획이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장님과 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